

李濟馬의 儒學的 人間觀과 醫學精神

송일병*

The confucian view of human being of Lee Je-ma and his spirits to appl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ong Il-byung

Dep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 Objects of Research

Dong-mu Lee Je-ma was tried to solve the diseases of human beings through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ith new viewpoints on human beings and life compared with the existed medicine. So it wa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his medical views in order to appl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clinical treatment. In this paper, I tried to find his medical views on human beings, life, and diseases to get informations in clinical application.

2. Methods of Research

It was researched as bibliologically with his writings such as 『Dongyi Soose Bowon(東醫壽世保元)』,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Dongmu Yugo(東武遺稿)』, 『Gyuk-chigo(格致藥)』.

3. Results and Conclusions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1. 『I Ching』's recognition of Things is that based on Yin-yang theory, originated from Taoism, and aimed to 'the Fine point of Easiness and Simpleness(易簡之妙)'. On the other hand, Dong-mu's is that based on Sasang theory, originated from Confucianism and designed to developed 'the Fine point of Easiness and Simpleness' in view of Sasang(四象).

2. Dong-mu Lee Je-ma had devoted himself in his whole life to establishing new paradigm in the Confucianism, inventing new medicine and, furthermore, embodying the spirit of General health maintenance.

3. Dong-mu Lee Je-ma recognized 'the Fine point of Easiness and Simpleness' in view of Sasang and offered new viewpoint of human being through summarizing various existing viewpoints.

본 논문은 제4회 사상체질의학 국제학술대회(2000년) 주제발표논문임.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교신저자: 송일병. 주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사상체질과. Tel) 958-9282 E-mail) songib@khmc.co.kr

4. Dong-mu Lee Je-ma established new viewpoint of life span of human being through offering new ideas such as 'Inherent vitality(命脈實數)', 'Essential power of organ(臟의 本常之氣)' and 'Regimen in ordinary life(生息充補之道)'.

5. Dong-mu Lee Je-ma embodied 'the Fine point of Easiness and Simplesness' in medicine through offering, in a wide meaning, the spirit of the General health maintenance and the spirit of the Positive medical treatment.

초 록

1. 연구 목적

東武 李濟馬는 四象體質醫學을 통해 인간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기존 의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질병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四象體質醫學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의 醫學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는 人間, 生命, 그리고 疾病에 대한 그의 醫學觀을 살펴 四象體質醫學의 임상 적용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東武 李濟馬의 저서로 밝혀진 『格致彙』, 『東醫壽世保元』,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武遺藁』 등의 문헌을 통해 그의 生涯와 醫學觀을 살펴보았다

3. 결 론

① 『周易』의 事物에 대한 인식체계는 道敎의 배경에서 나온 陰陽論的 要約精神의 인식체계로 陰陽의 易簡之妙를 구현한 것이고, 東武 李濟馬의 事物에 대한 인식체계는 儒學의 배경에서 나온 事心身物的 要約精神의 인식체계로, 『周易』의 것을 발전시켜 '四象的 易簡之妙'로 발전시켰고 이를 의학적 차원에서 완성시켰다.

② 東武 李濟馬의 생애는 어려웠던 시대상황 속에서 儒學哲學의 새로운 경지를 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醫學을 창안하였으며, 더 나아가 현실참여를 통해 廣濟精神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東武 李濟馬는 '四象的 易簡之妙'를 터득하여 기존의 다양한 유형의 人間觀을 天人性命의 事心身物的 要約精神으로 정리하고, 이를 性命論的·知行論的·體質論的 人間觀으로 제시하였다.

④ 東武 李濟馬는 새롭게 '命脈實數', '臟의 本常之氣' 및 '生息充補之道'의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人間壽命에 대한 구체적인 生命觀을 제시하였다.

⑤ 東武 李濟馬는 四象人의 知行的 調節, 生息充補之道的 섭생 및 治心治病을 통한 넓은 의미의 '廣濟醫學精神'과 새로운 四象體質病證體系의 확립을 통한 적극적 '疾病治療精神'을 제시하여 醫學에서의 '易簡之妙'를 구현하였다.

1. 緒 論

東武 李濟馬는 四象人의 四體質醫學을 통해 人間과 生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기존 韓醫學과는 다른 관점에서 人間の 疾病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1894년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여 四象人의 體質醫學을 최초로 창안하였으나, 그는 1900년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은 뒤 100년이 지난 후 세상에 四象醫學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遺言을 남겼다고 전한다. 마침 東武公이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되는 해인 2000년도에 세계적 중심도시인 뉴욕에서 '第4回 四象體質醫學 國際學術大會'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遺言의 의미를 함축하는 중요한 學術行事라 생각된다.

그는 왜 四象醫學理論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100년이나 걸린다고 보았을까? 기존의 『周易』, 『內經』에서 설명하고 있는 事物의 認識體系는 道教의 배경에서 나온 陰陽·五行의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새로이 東武公이 제시한 事物의 認識體系는 儒學의 배경에서 나온 四象(事心身物)의 要約精神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東武公의 遺言은 그가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主張이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周易序』에 "...六十四卦 三百八十四爻 皆所以順性命之理 盡變化之道也"라 하였는데, 東武 李濟馬는 기존의 陰陽的 認識體系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四象的 認識體系를 가지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性命論』, 『東武遺稿』 등을 근간으로 '性命之理'를 말하고자 하였으며, 『格致藁·反誠箴』¹⁾에서는 『周易·繫辭傳』의 내용을 언급하며 기존과는 다르게 '變化之道'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周易·繫辭傳』에는 "乾以易知, 坤以簡能, 易則易知, 簡則易從,... 易簡而天下之理得矣."라 하여 陰陽的 認識體系로 '易簡之妙'를 구현하려 하였는데, 東武公은 이를 발전시켜 事心身物의 四象的 要約精神을 통해 '易簡之妙'에 접근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四象體質醫學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의 새로운 四象的 認識體系에 바탕을 둔 醫學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東武 李濟馬의 저서로 밝혀진 『格致藁』, 『東醫壽世保元』,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武遺稿』 등의 문헌을 통해 그의 生涯를 살펴보고, 人間觀·生命觀·疾病觀으로 나누어 그의 醫學觀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東武公의 生涯와 著書

東武 李濟馬는 全州李氏로 1837년(憲宗3年, 丁酉年) 陰 3月19日 咸慶道 咸興에서 攀五의 庶子로 태어났다. 全州李氏 族譜에는 이름이 燮雲 또는 燮晉으로 되어 있고, 號는 東武, 字는 懋平 또는 子明이고, 初諱는 濟馬라 하였다.

幼年期의 東武는 祖父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天性이 쾌활, 용감해서 개성을 굽히지 않았으며, 어려서부터 다양한 책을 많이 읽었다. 7세 때(1843년, 癸卯) 伯父 直長公에게서 通史를 배웠으며 13세 때(1849년, 己酉) 鄕試에서 壯元하였고, 그 해 李濟馬는 집을 떠났다. 이후 청장년기의 생활은 불명확한데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견문을 넓혔다고 한다. 18세 때(1854년, 甲寅) 소련을 여행했으며, 20세 경에 만주 등지로 방랑생활을 하던 중 義州富人 洪氏 집에서 內外의 珍書를 博覽하였다. 30세 전후에는 芸菴 韓錫地가 著述한 『明善錄』을 얻었으며, 그 후 그를 매우 존경하여 '芸菴은 朝鮮의 第一人者'라 칭했다고 한다.

39세 때(1875년, 乙亥) 武科에 등용되었고, 40세 때(1876년, 丙子) 武衛別選軍官으로 入衛하여 武威將을 거쳤으며, 44세 때(1880년, 庚辰) 『格致藁·儒略』을 집필하기 시작하였고, 46세 때(1882년, 壬午) 『格致藁·獨行篇』을 저술했으며, 그 해 4월 18일에는 「教子平生箴」을 저술하였다. 50세 때(1886년, 丙戌) 鎭海縣監으로 임명되었고, 54세 때(1890년, 庚寅) 『格致藁·儒略』을 완성했으며, 57세 때(1893년, 癸巳) 『格致藁·反誠箴』을 저술하였다.

58세 때(1894년, 甲午) 4月 13日까지 漢南山中에서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고, 59세 때(1895년, 乙未) 母親病患으로 함흥으로 下鄕하였으며, 그해 11월에 『遺藁抄』를 저술하고, 60세 때(1896년, 丙申) 咸興地方의 혼란을 야기한 崔文煥의 소요를 평정하여, 正三品 通政大夫 宣諭委員에 除受되었고, 61세 때(1897년, 丁酉) 高原郡守에 임명되었으며, 이 때 「五福論」·「勸壽論」·「知行論」 등의 『濟衆新編』을 저술하였다.

62세 때(1898년, 戊戌) 모든 官職에서 사퇴하였고, 이후 고향에 돌아와 함흥 萬歲橋 부근에 保元局이

1) 『格致藁·反誠箴』
易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乾=事之始也 兌=事之終也 坤=物之本也 艮=物之末也 離=心之急固也 震=心之緩固也 坎=身之先着也 巽=身之後着也
太極之心 中央之心也, 心身之心 兩儀之心也, 事物心身之心 四象之心也.

란 韓醫局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보살피다가 1900年(庚子) 陰 9月21日 64세로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東醫壽世保元』을 改革하였다.

최근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소장본인 연기미상의 필사본인 『東武遺稿』가 발견되었는데, 내용으로 보아 東武公의 저서임이 분명하며, 중국에서 전해진 金九翹선생의 手抄본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도 내용상 東武公의 저서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본 그의 일생을 學問思想의 '形成·摸索期'와 '完熟·結實期'로 구분하여 본다면 어려서부터 54세 때(1890년, 庚寅) 『格致彙·儒略』을 완성할 때까지를 그의 學問思想의 形成·摸索期로 볼 수 있고, 54세부터 62세에 관직을 사퇴할 때까지를 學問思想의 完熟·結實期라 할 수 있다. 그는 구한말 政治, 經濟, 思想 등 전반적으로 혼란스럽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먼저 『格致彙』를 지어 그의 儒學哲學을 四象類型的 입장에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東醫壽世保元』을 지어 그의 治療醫學精神을 제시해 좁은 의미의 廣濟精神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말년에는 『濟衆新編』이나 『廣濟說』을 지어 후학들에게 勸學·勸壽·勸善의 방향을 제시하여 牧民官으로서, 儒學者로서의 所任을 다하고, 넓은 의미의 廣濟精神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2. 東武公의 醫學觀

(1) 人間觀

東武公의 인간관은 기존과는 달리 事心身物의 四象의 認識體系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性命論의 人間觀, 知行論의 人間觀, 天賦의 體質論의 人間觀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性命論의 人間觀

'性命'에 대한 認識은 기존의 『周易』 등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周易·乾卦』에서는 "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太和, 乃利貞"이라 하였고, 이에 대해 朱子는 『本義』²⁾에서 "물건이 받은 것은 性이라 하고 하늘이 賦與한 것은 命이라 한다"고 註解하였다. 또한 『周易·繫辭傳』에서는 "昔者聖人之作易也,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以至於命."이며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라 하여 聖인이 易을 지은은 장차 '性命之理'를 順하기 위함이며, 이 때문에 하늘에서는 陰陽·땅에서는 剛柔·사람에서는 仁義를 중시한다 하니, 이는 萬物을 陰陽論의 認識體系下에 설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周易』에서는 '性命'은 天賦받는 것이며 그 이치를 順하는 것을 易을 지은 목적이라 하며 陰陽論의 人間觀을 제시하고 있다.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사람이 태어날 때 '性'만을 받는 것이 아니고 '命'도 함께 稟賦받는다고 認識하고, 이로써 '性'과 '命'을 통해 人間을 설명하는 '性命論의 人間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陰陽論의 認識體系와는 달리 天人性命·上下左右의 四元構造의 認識體系에 기반을 둔 四象의 人間觀이라 할 수 있다. 『東武遺稿·時色耳目』에서는 "膀胱物也, 腰膂身也, 胸膈心也, 面目事也. 事即天也, 物即人也, 身即命也, 心即性也. 天在上也, 人在下也, 身向左也, 心向右也."라 하여 人體, 人間社會, 宇宙를 모두 四象의 體系로 要約하여 설명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性命論』에 性을 '慧覺'이라 하여 仁義禮智 忠孝友悌와 같은 諸般百善이 이에 해당되며 德이 나오는 바탕이라 하였고, 命을 '資業'이라 하여 土農工商 田宅邦國과 같은 諸般百用이 이에 해당되며 道가 나오는 바탕이 된다고 하였으며, 慧覺은 '兼人'하여야 '教'가 있다고 하였고 資業은 '廉己'하여야 '功'이 있다고 하였다.³⁾ 또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 第一統』에서는 性을 '知行', 命을 '衣食'이라 하였는데 知行은 '兼人'하려 하고 衣食은 '潔己'하려 하며, 知行이 積소한 것을 '薄德', 衣食이 貪濫한 것을 '悖道'라 하였

3) 『東醫壽世保元·性命論』

天生萬民 性以慧覺 萬民之生也 有慧覺則生 無慧覺則死 慧覺者 德之所由生也
天生萬民 命以資業 萬民之生也 有資業則生 無資業則死 資業者 道之所由生也
仁義禮智 忠孝友悌 諸般百善 皆出於慧覺 土農工商 田宅邦國 諸般百用 皆出於資業
慧覺 欲其兼人而 有教也 資業 欲其廉己而 有功也
慧覺私小者 雖有其傑 巧如曹操而 不可爲教也 資業橫濫者 雖有其雄 猛如秦王而 不可爲功也

2) ...物所受爲性, 天所賦爲命...

다.) 이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누구나 性으로서의 慧覺(知行)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자기의 命을 유지할 수 있는 資業(衣食)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慧覺(知行)과 資業(衣食)을 잘 닦으면 道德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薄德·悖道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다.

또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 第一統』에서 “貪儒鄙薄之人, 四隅漏缺, 卽私慾之桎梏, 其人暴棄者也, 聖人與衆人萬殊也.”이라 하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第五統』에서 “...孟子曰: 自棄者不可與有爲也, 此之謂也... 孟子曰: 自暴者 不可與有言也, 此之謂也...”라 하여 타고난 天稟의 性命을 ‘自暴自棄’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知行論의 人間觀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 “知行積則 道德也. 道德成則 仁聖也. 道德非他 知行也. 性命非他 知行也.”라 하여 性命이나 道德보다 知행이 더 우선함을 말하고, 耳目鼻口의 好善之心과 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은 衆人이나 堯舜이 한가지지만 衆人의 頤臆臍腹에 숨겨져 있는 誣世之心을 ‘存其心 養其性’하여 극복하여야 堯舜의 知가 될 수 있고, 頭肩腰臀에 숨겨져 있는 罔民之心을 ‘修其身 立其命’하여 극복하여야 堯舜의 行이 된다고 설명하여 知行論의 人間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曰 命者 命數也. 善行則 命數自美也. 惡行則 命數自惡也. 不必卜筮而 可知也”라 하여 知행의 修不修에 따라 人性이 결정된다고 보아, ‘責心’을 통하여 存心養性의 知를 쌓고 ‘責氣’를 통하여 修身立命의 行을 닦으면 누구나 道德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이러한 道德을 쌓으면 仁聖에 도달할 수 있다는 人間의 自律의 知행을 통한 性命의 完成을 강조

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第三統』에서는 ‘事事盡善, 節節必中’하고, ‘明知誠行, 善思敬行’을 통해 ‘自然避凶, 趨吉免危, 而祇安五臟完而福壽至矣’라 하여 후천적인 知행을 통해 凶을 피하고 吉함을 지향하며, 福壽에 이름을 말하고 있다. 또 『東武遺稿·教子平生箴』에서 “..., 寡慾力行, 遇事求知, 知多心活, 慾多心傷...”라 하고, “...修之者吉, 不修者凶.”라 하여 個人의 修不修에 따라서 吉凶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周易序』에서 “極其數以定天下之象 著其象以定天下之吉凶”이라 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東武公은 그의 後期 著作인 『遺稿抄』에서 “存心養性而謙以立人, 則言行美也. 修身立命而廉以濟衆, 則財食吉也.”라 하고, “道平天下, 是謂知命, 德修一身, 是謂樂天.”이라 하여 知행을 통해 ‘知命’, ‘樂天’의 궁극을 完成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東武公은 새롭게 四象의 易簡之妙를 터득하여, 性命論의 人間觀을 바탕으로 知行論의 人間觀을 제시하고 이를 言行論의 人間觀으로 확대 발전 시킴으로 해서 기존의 다양한 유형의 人間觀을 四象의 要約精神으로 정리해 새로운 차원의 儒學的 人間觀을 완성하게 된다.

3) 體質論의 人間觀 (天賦의 人間觀)

이상의 性命論의 人間觀, 知行論의 人間觀은 東武公의 一般論의인 人間觀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아울러 그는 體質論의 人間觀을 제시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 儒人,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이라 하여 四性和 四慾의 體質論의 차이를 언급하였고, 『擴充論』과 『廣濟說』 등에서는 四象人別로 人事의 能否와 酒色財權의 膠着을 말하였으며, 특히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第六統』에서는 “少陽人一偏哀心, 輕銳事務而忘却居處, 故少陽人尤不可好色. 太陰人一偏樂心, 輕銳居處而忘却事務, 故太陰人尤不可好貨. 太陽人一偏怒心, 輕銳交遇而忘却黨與, 故太陽人尤不可好酒. 少陰人一偏喜心, 輕銳黨與而忘却交遇, 故少陰人尤不可好權.”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性·慾, 人事, 酒色財權 등에 體質別

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第一統』
天生萬民, 性以知行, 萬民之生也. 有知行則生, 無知行則死. 知行者 德之所由生也.
註: 仁義禮智, 忠孝友悌, 諸般百善皆出於知行.
天生萬民, 命以衣食, 萬民之生也, 有衣食則生, 無衣食則死. 衣食者 道之所由生也.
註: 士農工商, 田宅邦國, 諸般百用皆出於衣食.
5) 『東醫壽世保元·性命論』
人之頤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 養其性 然後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中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 立其命 然後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偏差가 있는 가운데, 聖凡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個人的 責心責氣를 통한 存心養性과 修身立命의 知行的 實踐에 있으며, 이는 知行을 통한 道德과 人性的 완성은 개인의 修不修에 달린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知行的 實踐에 있어 東武公은 四象人別로 서로 다른 體質論의 知行論을 제시하고 있는데 『東醫壽世保元·擴充論』에서 頤臆臍腹과 頭肩腰腎에 담겨 있는 四象人의 邪心과 怠行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太陰人에게는 驕心(知)과 侈心(行)을, 少陰人에게는 矜心(知)과 奪心(行)을, 少陽人에게는 奪心(知)와 懶心(行)을, 太陽人에게는 伐心(知)과 竊心(行)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다.⁶⁾ 또한 「四端論」에서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 知人不明也.”라고 하여 喜怒哀樂의 갈등이 모두 知行的 不備에서 온다고 보고 四象人의 體質的 知行을 통하여 暴動浪動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四象人의 知行的 調節은 生理的인 健康의 유지 방법임은 물론이고 道德的인 好善惡惡의 倫理精神에까지 관여된다고 보았다.

한편, 이상의 天賦的 體質論的 人間觀은 性情이 天稟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天稟을 恒戒自反하여 스스로 자신의 天稟을 극복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天稟的 결과보다는 修己治人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東武公의 體質論은 存在決定論的인 體質論이 아니라 行爲決定論的인 體質論이라 할 수 있겠다.

(2) 生命觀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天稟之已定之外 又有短長而 不全其天稟者則 人事之修不修而 命之傾也 不可不慎也”라 하여 人事의 修不

修에 따라 壽命(命)이 좌우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람은 누구나 幼少長老의 과정을 거치게 되나 개인적 노력에 따라 그 壽命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1) 命脈實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第二統』에서는 ‘命脈實數’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太陽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皆損肝, 故 太陽人 以肝臟剩削 爲命脈長短. ...太陰人...”이라 하여 偏少之臟의 虧缺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四象人의 健康을 유지하는 生命力과도 같은 것이다. 이는 『東武遺稿·教子平生箴』에 “勇五臟腎強而脾弱,, 故凡酒色思慮所膠着, 皆傷脾而損陽.”이라 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財權酒色의 모든 內傷外觸은 四象人 각각의 偏少之臟을 剩削하여 命脈의 長短이 된다고 하였으니 예를 들어 太陽人의 경우 偏少之臟인 肝臟이 十分 완전해서 肺臟과 서로 비길 수 있는 사람은 ‘極完境人’이라 했고, 절반 정도 소모되고 모자라서 偏大之臟인 肺臟에 비하여 절반이 안되면 ‘極壞境人’이라 하여 죽을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⁷⁾

더 나아가 이 命脈實數를 ‘神仙·清朗·快輕·康寧·外感·內傷·牢獄·危傾’의 8載로 구분하였고, 각 절에는 初中終의 구분을 두어 총 24載로 나누고 있다.⁸⁾ 또 “命脈 在神仙度數者 壽一百二十八. 在清朗度數者 壽可百十六. 在快輕度數者 壽可一百四. 在康寧度數者 壽可九十二. 在外感度數者 壽可八十. 在內傷度數者 壽可七十.”이라 하여 ‘命脈實數’에 따라 壽命의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8載중에 ‘神仙·清朗’은 ‘極完境人’이라 할 수 있고, ‘牢獄·危傾’은 ‘極壞境人’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6)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太陰之頤 宜戒驕心 太陰之臆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絕世之經綸 必在此也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
少陽之腹 宜戒夸心 少陽之腹 若無夸心 絕世之度量 必在此也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此也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威儀 必在此也
少陽之腰 宜戒懶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材幹 必在此也
太陽之腎 宜戒竊心 太陽之腎 若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

7)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第二統』.
太陽人 肝臟十分固全而與肺相敵者, 極完境人也, 一半虧缺而與肺讓倍者, 極壞境人也, 過此則死, 以此推之 太陽人肝臟部一半爲命脈實數, 他臟倣此.

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第二統』.
臟部一半 命脈實數 平分八載, 第一載 名曰神仙, 度數言其最高也, 第二載 名曰清朗, 度數言精神清朗也, 第三載 名曰快輕, 度數言一身快輕也, 第四載 名曰康寧, 度數言百體康寧也, 第五載 名曰外感, 度數言表氣外虧也, 第六載 名曰內傷, 度數言裏氣內損也, 第七載 名曰牢獄, 度數言其病如入獄也, 第八載 名曰危傾, 度數言其命遂危境.

2) 臟의 本常之氣

한편,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第六統』에서 ‘臟의 本常之氣’라 하여 人體가 生命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지표를 제시하였는데,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第一統』에서는 “人之臟氣, 內存精靈, 外應事物, 爲酒色所傷者, 既傷於酒色, 又困於居處行身, 所以受病甚酷.”이라 하여 사람의 臟氣(臟의 本常之氣)가 損傷되어 疾病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다. 命脈實數가 ‘牢獄·危傾’인 ‘極壞境人’은 바로 이 臟의 本常之氣가 절반 이상 손상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疾病時에도 藥 자체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臟氣와 부합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였으니,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第六統』에 “臟氣主也, 藥氣客也.”라 하였고, “塗壁之客土與主土不成完合, 則數三月後客土與主土俱落, 補臟之藥氣與臟氣不成完合, 則一半年後藥氣與臟氣具湯.”이라 하여 ‘臟氣’는 ‘主’로 ‘藥氣’는 ‘客’으로 설정하면서, ‘主土’와 ‘客土’의 不成完合에 비유하여 臟氣를 손상시키지 않고 부합되게 하여 보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해서 “參苓杞菊等藥性淡平, 有病可以久服, 常服而亦有時間斷, 以安臟本常之氣.”이라 하여 기존에 上品으로 여겨지는 藥이라 할지라도 ‘臟의 本常之氣’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 生息充補之道

東武公은 ‘命脈實數’가 어디까지나 후천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第二統』에서 ‘生息充補之道’를 말하고 있다. 이는 命脈이 손상되었을 때의 회복력을 말하는 것으로 ‘酒色財權·內傷外觸’에 命脈이 손상이 되더라도 이 ‘生息充補之道’에 의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는 ‘老年不如壯年, 少年不如幼年’한 것이라 하였고, ‘四十까지는 當日血氣之所損傷者가 비록 크더라도 當日所生息者가三四배가 되어 有剩餘而充補之할 수 있으나, 四十一 후에는 當日生息이 剩餘하더라도 만약 當日損傷이 크면 當日充補不能快恰이라’ 하여 나이가 들수록 命脈損傷을 회복할 수 있는 ‘生息充補之道’에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결국 東武公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人性을 더욱 개선시켜 살아가게 된다는 人間觀을 바탕으로, 後天的으로 결정되는 ‘命脈實數’와 이의 극복을 위한 ‘生息充補之道’를 제시함으로써 人間의 壽命 또한 後天的인 노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生命觀을 제시하고 있다.

또, 心術이 壽夭와 관계되니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第六統』에서 “一國之中 心術善者持國則一國心氣皆活發而人民多壽, 心術惡者持國則一國心氣皆窘促而人民多夭, 一邦一鄉一家亦然.”이라 하여 酒色財權의 膠着狀態에 빠지지 않고 ‘知足知止’하여 ‘好心術’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疾病觀과 治療醫學精神

1) 健康狀態·準健康狀態·疾病狀態에 대한 認識
東武公은 기존 醫學과는 달리 健康人과 患者를 이분하지 않고, 健康狀態·準健康狀態·疾病狀態를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第二統』에서는 四象人의 健康을 유지하는 生命力인 命脈實數를 偏少之臟의 虧缺정도에 따라 ‘神仙·淸朗·快輕·康寧·外感·內傷·牢獄·危傾’의 8截로 구분하고 있다. 偏少之臟이 十分 완전해서 偏大之臟과 비길 수 있는 사람을 ‘極完境人’이라 하고 있는데 ‘神仙·淸朗’이 이에 속하며, 이는 健康狀態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偏少之臟이 偏大之臟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소모되어 있는 사람을 ‘極壞境人’이라 하는데 ‘牢獄·危傾’이 이에 속하며 이는 곧 죽을 수도 있는 疾病狀態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快輕·康寧·外感·內傷’의 중간 여섯 단계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개선이 될 수 있는 準健康狀態라 할 수 있다. 이처럼 東武公은 기존 의학의 疾病觀과는 달리 人間의 健康生命력을 바탕으로 疾病狀態뿐만이 아니라 疾病 以前의 健康狀態·準健康狀態를 같이 認識하였다.

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第二統』, 幼年少年三十二年及壯年前八年, 當日血氣之所損傷者雖大, 而當日所生息者輒三四倍, 有剩餘而充補之, 自壯年始八年以後, 當日生息亦有剩餘, 而若當日損傷大, 則當日充補不能快恰, 至於老年, 則當日生息亦不無稍餘, 而當日損傷稍異平常, 則當日充補不能支持.

한편, 人間을 평생 동안 스스로를 心身 兩面的으로 다스려 가는 主體的이고 自律的인 存在로 파악하는 바탕 하에, 健康狀態나 準健康狀態에서는 個人的 精神的·肉體的·社會的 修養을 기본으로 해서 知行을 통한 喜怒哀樂 性情의 中庸的 調節과 生息充補之道의 攝生을 통해 疾病의 豫防과 健康的 구현을 목표로 하는 廣濟醫學精神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疾病狀態로 이행하게 되었을 때는 保命之主와 升降緩束의 調節을 바탕으로 하는 四象人의 體質病證藥理를 設定하여 運營하게 되는 것이다.

2) 治心治病의 醫學精神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廣濟說』에서 “妬賢嫉能 天下之多病也 好賢樂善 天下之大藥也”라 하여 儒學의 實踐倫理를 바탕으로 四象人의 知行의 調節을 통하여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治心治病’하는 治療醫學임을 강조하고 있다. 四象人의 體質의 脆弱點에 대하여, 肺脾肝腎의 大小에 따른 上下升降의 偏在性을 극복하기 위한 喜怒哀樂의 中庸的 調節方法, 心性的 偏在現象을 극복하기 위한 偏倚過不及의 人 心慾闊狹의 中庸的 調節方法, 人事의 能否를 극복하기 위한 酒色財權의 警戒와 이의 中庸的 調節을 통한 內外(己物)의 均衡方法 등을 제시하고 ‘知人正己’를 指向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治心治病’의 治療醫學精神을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第三統』에서는 “人非堯舜, 何能仁義禮智事事盡善, 人非孔孟, 何能喜怒哀樂節節必中. 雖不善也, 不太不善則, 己近於善矣. 雖不節也, 不太不節則, 己近於節矣. 如此做去則, 自然避凶, 趨吉免危, 而祇安五臟完而福壽至矣.”라 하였고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는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喜怒哀樂未發而 恒戒者 此 非漸近於中者乎. 喜怒哀樂已發而 自反者 此 非漸近於節者乎”라 하였다. 이는 仁義禮智·喜怒哀樂을 ‘事事盡善, 節節必中’과 ‘恒戒·自反’을 통해 조절하고, 이를 통해 道德的인 好善惡惡의 倫理精神에까지 이르게 되며, 결국 凶을 피하고 吉함을 지향하여 福壽에 이르게 된다는 東武公의 知行調節을 통한 ‘治心治病’의 精神을 강조하는 것이다.

3) 새로운 體質病證體系의 確立

-水穀之氣病證과 氣液之氣病證-

東武公은 人間을 構造와 機能 中心으로 認識하는 四元構造의 形象醫學精神을 바탕으로 四象人의 臟腑性理와 保命之主에 의거해서 體質病證을 크게 水穀之氣病證과 氣液之氣病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새롭게 氣液之氣病證觀을 認識하여 기존의 生理·病理觀보다 확대되고 발전된 차원의 四象 體質病證을 확립한 것으로, 기존 의학의 복잡다단함을 요약·정리해 의학적 차원에서 ‘四象의 易簡의 妙’를 구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 “水穀 納於胃而 脾衛之 出於大腸而 腎衛之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而 迭爲補瀉者也. 氣液 呼於胃脘而 肺衛之 吸於小腸而 肝衛之 肺肝者 呼吸氣液之門戶而 迭爲進退者也.”라 하였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 第五統』에서는 “脾腎之體形, 有質而無葉, 掌內修之柄者宜乎, 全其專一之穀子也. 肝肺之體形, 有葉而無質, 持外御之勢者宜乎, 派其四散之議像也.”라 하고, “穀道通於腸胃, 溫冷交濟於上下, 氣道通於三焦, 虛實均適於表裏.”라고 하여 可視的인 構造 中心의 生理觀과 非可視的인 機能 中心의 生理觀을 差別化하여 설정하였다. 이런 四象人의 生理的 特徵 下에 脾腎의 大小로 결정되는 少陰人과 少陽人은 水穀之氣 障導로 病證이 발생하니 이는 構造 中心의 病證體系라 할 수 있고, 肝肺의 大小로 결정되는 太陰人과 太陽人은 氣液之氣 障導로 病證이 발생하니 이는 機能 中心의 病證體系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病證運營에 있어서도 少陰人과 少陽人 病證은 水穀之氣의 寒熱病證으로 그 治療精神은 上下升降의 調節에 있고, 太陰人과 太陽人 病證은 氣液之氣의 溫涼病證으로 그 治療精神은 內外緩束의 調節에 있음을 각각 제시하여 上下內外와 升降緩束의 易簡의 妙로 기존의 복잡다단한 病證을 水穀之氣 病證과 氣液之氣病證의 病證體系로 요약·정리하였다.

少陰·少陽人의 病證藥理는 기존의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으나, 太陰·太陽의 病證藥理는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것으로, 東武公의 業積이 네 體質의 발견보다는 이와 같은 네 體質病

證藥理의 완성에서 더욱 빛난다 하겠다.

III. 結 論

1. 『周易』의 事物에 대한 인식체계는 道敎의 배경에서 나온 陰陽論的 要約精神의 인식체계로 陰陽的 易簡之妙를 구현한 것이고, 東武 李濟馬의 事物에 대한 인식체계는 儒學의 배경에서 나온 事心身物的 要約精神의 인식체계로, 『周易』의 것을 발전시켜 '四象的 易簡之妙'로 발전시켰고 이를 의학적 차원에서 완성시켰다.
2. 東武 李濟馬의 생애는 어려웠던 시대상황 속에서 儒學哲學의 새로운 경지를 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醫學을 창안하였으며, 더 나아가 현실참여를 통해 廣濟精神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3. 東武 李濟馬는 '四象的 易簡之妙'를 터득하여 기존의 다양한 유형의 人間觀을 天人性命의 事心身物的 要約精神으로 정리하고, 이를 性命論的·知行論的·體質論的 人間觀으로 제시하였다.
4. 東武 李濟馬는 새롭게 '命脈實數', '臟의 本常之氣' 및 '生息充補之道'의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人間壽命에 대한 구체적인 生命觀을 제시하였다.

5. 東武 李濟馬는 四象人의 知行的 調節, 生息充補之道의 섭생 및 治心治病을 통한 넓은 의미의 '廣濟醫學精神'과 새로운 四象體質病證體系의 확립을 통한 적극적 '疾病治療精神'을 제시하여 醫學에서의 '易簡之妙'를 구현하였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신일문화사, 서울, 1972.
2. 李濟馬, 格致彙, 덕흥인쇄소, 함흥, 1940.
3. 原人手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연변민족의학연구회, 1984.
4. 李濟馬 著·이창일 譯註, 東武遺稿-東武 李濟馬가 남긴 글-, 청계출판사, 성남, 1999.
5. 成百曉譯註, 懸吐完譯 周易傳義,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1998.
6. 宋一炳, 東武 李濟馬의 學問思想, 사상의학회지 8(2) : 1-10, 1996.
7. 宋一炳, 東武公의 形象觀과 四象醫學의 形象醫學精神, 사상체질의학회지 11(1) : 1-13, 1999.
8. 宋一炳, 四象人의 體質病證藥理에 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0(2) : 1-14, 1998.